



수리상은 이렇게  
후 5시까지 계속된다.

지난달 30일 광주시 동구 윤림동 무등산 자락 문화공간 윤림제에서 열린 중무형문화재 제38호 조선왕조 궁중음식 발표회 '다섯의 어울림 오미, 오색, 오미'전. '왕과 왕비의 수리상 올리기'가 재연되고 있다. (사)궁중음식연구원이 주최하는 이번 발표회는 1일 오후 5시까지 계속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中 상하이엑스포 화려한 개막

189개국 참가...여수박람회 대규모 참관단 파견 홍보·벤치마킹 총력

중국 상하이엑스포가 지난달 30일 오후 화려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6개월간(184일)의 공식 행사에 들어갔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와 전남도, 여주시 등도 이번 박람회를 여수박람회 준비 및 홍보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보고 참관단을 파견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다.

상하이엑스포는 189개 국가와 57개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 세계적인 경제회복 국면에 개최돼 2년 앞으로 다가온 여수엑스포의 성공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상하이엑스포사무국은 이날 오후 8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등 전세계 20여개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개최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개막식에는 국회의장과 부통령, 부총리급 등을 포함해 20여개 국가의 귀빈들도 참석했다.

개막식에서는 상하이 황푸강 양안 3.28km 구간에서 대형 발광다이오드(LED)를 이용해 펼쳐지는 영상과 폭죽 놀이가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고 300여종 10만여발의 폭죽이 발사됐다.

한국은 이번 박람회에 국가관과 여수박람회 홍보관, 12개 기업 연합관 등을 운영하는 등 엑스포 사상 최대

규모로 참가, 한류 전파에 나섰다.

특히 전남도와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 등은 이번 박람회 운영을 벤치마킹해 여수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여수엑스포의 성과가 달랐다고 보고 여수박람회 홍보관을 중심으로 한류스타가 참여하는 '개막 2년 전 기념 특별공연', '로드쇼' 등을 홍보전에 나선다.

전남도는 도청과 시·군 20여명의 직원으로 참관단을 구성, 박람회 기간 관광·숙박·음식 분야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하고 전시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등 박람회 기간 동안 모두 465명의 참관단을 파견한다. 민간차원에

서도 1500여명의 전남도민이 참관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또 오는 26일 열리는 한국의 날 및 한국주간(27일~30일) 행사에 맞춰 여수박람회 개최를 알리는 집중적인 이벤트와 마케팅을 전개한다.

여수시도 지난달 29일 개막식 참석을 위해 시민 등 150명으로 구성된 참관단을 보낸 데 이어, 4차례 전세기를 띄워 여수박람회 개최 열기를 확산하겠다는 전략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상하이박람회를 계기로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열기를 확산, 성공 개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조선대 등록금(685만원) 가장 비싸

광주·전남 16개 대학 평균 554만원...학생 1인 교육비 영산선학대 최다

조선대학교가 광주·전남지역 4년제 대학 가운데 학년도 등록금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처음 공개된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영산선학대가 2천140만7000원으로 교육투자액이 가장 많은 돈을 썼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30일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공개한 광주·전남지역 16개(광주가톨릭대 통계 제외) 대학 등록금 현황에 따르면 최고는 조선대 685만4000원, 최저는 영산선학대 200만원이었다. 동신대가 684만6000원으로 조선대와 8000원 차이밖에 나지 않았으며 광주대·남부대 680만원, 호남대 667만원, 광주여대 632만원 등이었다.

국립인 전남대는 431만원, 순천대 415만원, 목포대 407만원 등으로 사립대보다 200~250만원 정도 적었다.

목포가톨릭대가 623만원, 호남선학대가 587만원이었으며 광주가톨릭대는 등록금을 받지 않았다.

지역 대학 등록금 평균은 554만1000원으로 지난해 547만4000원에

서 6만7000원 가량 올랐으나 전국 대학(176곳) 평균액 684만5000원에 비해서는 130만4000원(19.1%)이 적었다.

등록금 인상은 목포해양대가 9.81%를 가장 많이 올렸으며, 호남선학대 5.48%, 남부대 3.32%·순천대 2.88%, 목포대 1.59% 순이었으며, 명신대와 호남대는 각 3.91%와 0.12% 내렸다.

1인당 교육비는 종교 대학인 영산선학대가 214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1인당 교육비는 학교가 재학생 한 명에게 1년 동안 투자한 비용으로 인건비·물건비·학비·감면액·발전기금·계 등 다양한 교육여건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광주가톨릭대 1687만원, 전남대 1146만원, 목포해양대 1093만원, 순천대 871만원, 목포대 863만원, 조선대 835만원, 동신대 830만원 순이다. 가장 적은 곳은 명신대로 401만원이었으며 광주여대 483만원, 남부대 494만원, 광신대 546만원 등이다.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종교 관련 학교가 교육비가 많았으며 상위 대학은 대부분 국립대가

순위	대학	1인당
1	영산선학대	21,407
2	광주가톨릭대	16,870
3	전남대	11,462
4	목포해양대	10,929
5	순천대	8,712
6	목포대	8,625
7	조선대	8,354
8	동신대	8,302
9	호남대	7,793
10	광주대	7,270
11	호남선학대	6,742
12	대불대	5,958
13	목포가톨릭대	5,483
14	광신대	5,459
15	남부대	4,942
16	광주여대	4,834
17	명신대	4,013

차지했다.

특히 사립대학은 등록금이 많이 걷는 반면에 교육투자에는 국립보다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 등 상위 4개 대학을 제외하곤 전국 일반대학 교육비 평균(979만원)에 모두 미치지 못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전남도립대 목포대로 통합 추진

2011년 까지...담양·장흥 캠퍼스 특성화

목포대와 전남도립대가 이르면 오는 2011년부터 '목포대'로 통합한다.

목포대는 지난달 30일 "2011년 3월까지 목포대와 전남도립대를 목포대로 통합하는 '목포대와 전남도립대 간 통합승인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6월 말까지 심사를 벌여 통합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통합이 승인되면 두 대학은 오는 2011년 3월부터 목포대로 통합, 신입생을 선발한다.

통합승인신청서에 따르면 '통합 목

포대'는 현재의 목포대인 '목포캠퍼스', '도립 캠퍼스'에 제2 공과대학으로 특성화한 '담양 캠퍼스', 식품의약 자원 특화시설과 학생수련원을 갖춘 '장흥캠퍼스' 등 4개 캠퍼스 체제를 갖추게 된다.

도립대의 20개 학과 가운데 목포대와 유사한 13개 학과는 통합되고, 나머지 7개 학과도 6개 학과로 조정된다. 도립대 교직원(51명)은 전원 고용 승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도립대가 지자체 재산이기 때문에 국립대와 합치기 위해서는 정

부가 사들이거나, 임대하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

지방공무원인 도립대 교직원들의 국가직 전환 문제도 풀어야 한다. 입학사정도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가직 공무원을 무작정 늘릴 수 없기 때문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학교실업 56주년(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키를 닦고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세계가스타·세기보청기

4월 5일(토) 10:00~12:00

1388-8489-888-222-9108

1388-8489-888-222-9108

1388-8489-888-222-9108

1388-8489-888-222-9108